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서언(5) 금강(金剛), 다이아몬드 혹은 버락에 대하여

제가 쓰는 글이, 단도직입,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창 뜬을 들이거나, 펜스에 에두르려는 편지를 자주 듣습니다. 선사(禪師)인 한형조 <금강경>의 주석을 모으고, 거기다가 자신의 장황한 해설(說論)까지 덧붙이는 그 지극히 반정통적(?) 작업을 두고, 한 말씀 더 해 두려다가, 나중에 미루고, 그만 <금강경>의 세계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의 안목과 책의 가치를 따져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 또한 원호 스님이 <대승기신론소>에서 지적하듯, '읽을 따라 놀기를 놓치는(把業而亡輪)' 우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승이 기신한다?

지난해 원호 스님의 저술 영역 사업의 중간보고를 겸한 학술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해 11월이군요. 뉴욕 스토니부룩의 박사배 교수님께서 하신 일갈, 사자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인즉슨, 수많은 석학 교수들과 스님 선지식들이 원호 스님의 <대승기신론>을 해석하고 해설해 왔는데, 정작 '대승(大乘)'이 무엇인지, 그 당체(當體)를 아무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추어라 반쯤만 얼굴이 따가웠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역시 근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 말이 나온 김에 외람되이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도, 그 '대승'의 진면목을 '깨달음' 정도로는 안 되고, '깨쳐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순전히 제 식으로, 아마도 지

늘 스님이 말씀하신 해오(解悟)와 증오(證悟)의 간격을 강조하시나 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대승기신론>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달리, 파격적으로, '대승이 믿음을 일으킨다'로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도, 대승기신론을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로 읽게 되면, 자연히 능소(能所), 즉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안팎도 너와 나도 없는 소식

다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버락에 가리킨다?

애기가 곁가지로 흘렀습니다. 제목과의 대결을 피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던 중이였지요. <금강경>은 약칭이고, 정식명칭은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여기 능(能)을 덧붙여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하기도 합니다. 제목은 네 부분으로 나

뚫, 무엇이든 부수지만, 그 자신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석의 속성이 지금 이 경전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금강이, 즉 산스크리트어의 '바즈라 Vajra'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견해에 있습니다. 바즈라는 인드라신이 갖고 다니는 무기인데, 이것은 다른 아닌 '버락'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금강저(金剛杵)입니다. 이 물건을 한번

만 산맥을 부수는 인드라신의 무기"라고 읊은 노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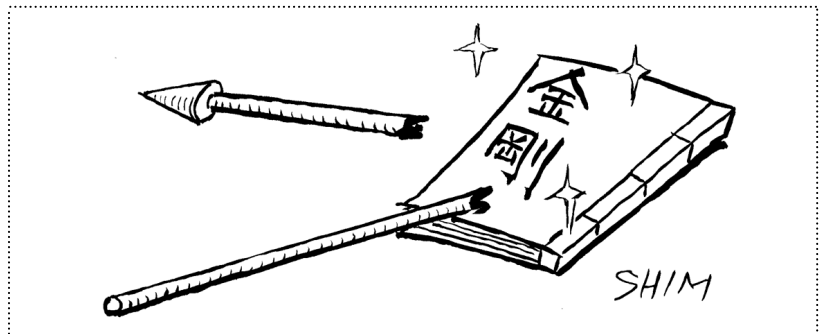
불교는 부수면서 동시에 세워야 한다

들 가운데 어느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일거에 깨뜨린다'는 속성을 갖고 있으니, 어느 편이나를 굳이 따지지 말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이 이들을 비유로 쓸 때, 단순히 '자른다'는 한 가지 특성에만 유의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의 다른 측면까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와 '버락'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깨뜨리는 기능을 제하고도 남은 무엇이 있지요. 굵어 흠집 하나 가지 않는 값비싼 보석이고, 또 오랜 시간을 변하지 않는 빛과 광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버락은 철축의 어둠을 일거에 몰아내고, 고목을 한방에 박살내는 희유(稀有)한 기능을 발휘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순간적 일회적이고, 이윽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버락으로는 집을 살 수도 밭을 사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역치를 부리고 지나치게 천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짐짓 원호 스님의 어법을 빌리자면, 불교는 '부수기'도 해야 하지만, '세우기'도 해야 합니다. 버락은 부수는 쪽의 비유로는 적절하지만, 세우는 쪽의 비유로는 결맞지 않습니다. 부수고 세우는 양면을 포괄하기로는 역시 '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어원은 어떤지 몰라도, '한문 불교'의 전변역과 주석이 금강을 '다이아몬드'로 읽고 해석해 나간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누어져 있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이 그것입니다. 첫 항목부터 차례차례 살펴보기로 합니다.

금강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콘즈(Edward Conzel)는 <금강경>을 영역하면서 'Diamond Sutra'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번역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다방면(方便)의 역할을 너무 도의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강의 도중 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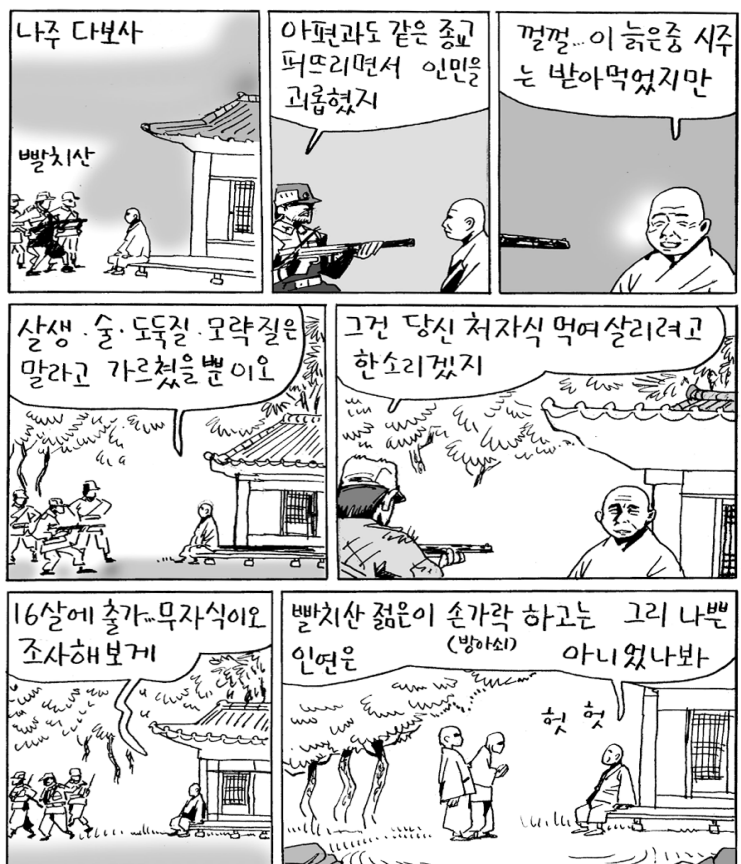
씩 보신 적이 있을 줄입니다. 손잡이 양끝에 예리한 칼날이 달려있는 방망이로, 돌레에 연꽃과 금강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밀교에서 특히 중시한 의식용 도구인데, 지금도 호신부로 팔고 있습니다. 전제성 교수님의 대역본 <금강경>은 이 견해에 입각해 '반개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 책 안에서 위대한 찬불시인이었던 마뜨릿제따가 금강을 두고 '무지의 어둠을 쫓아버리는 태양, 교

주장사파라...

전강 스님의 '인생법문'



조태호



전강 스님(1898-1975): 전남 곡성 생. 해인사에서 인공 스님에게 출가. 전국 유명 선원에서 정진. 통도사, 법주사 등 선원장. 대흥사, 회암사 주지 역임. 1960년 용화사 법보선원 장건.

네티즌 교리문답

‘판치한’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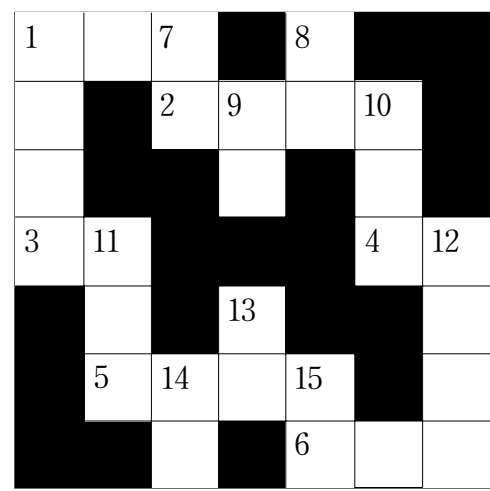
선어록에서 종종 보이는 '판치한(板蕪)'이란 말은 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지요. (D 판치한)

답1: 판치한은 담판(擔板)을 말합니다. 담판은 판자(板子)를 어깨에 매면 한 면 밖에 볼 수 없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선종에서 편견을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곧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문에서 쓰이는 이 말은 꼭 상대를 낮추어 비교는 말이라기 보다는 상대에게 내가 지금 편견에 빠졌으니 스스로 되돌아보아 그 편견에서 벗어나라는 경책의 말입니다.

선문답을 보면 스승과 제자 도반간의 선문답 중에 스승이 제자를 경책할 때 좀 심하다 싶은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담판한, 속한, 소금을 암 거레로 파는 저, 절름발이 자라 같은 자, 눈 먼 거북이 같은 자, 도둑놈, 야호(여우), 천지, 일천제, 바보 녀석, 명명구리, 이놈, 방, 할 등등 그 예는 사람에 따라 참 다양합니다. 이런 말들은 스승이 제자를 일반적으로 비하하거나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답 중에 일어난 제자의 여러서는 생각이나 행동을 강하게 지적하거나 또 일전어(轉語)를 듣고도 감을 잡을 듯 말 듯 아리송해 있을 때, 이를 경책하여 그 문답의 낙처(落處)를 강하게 각인시켜줌으로써 제자가 이 말에 따라 즉시 또는 차후에도 깨닫게 하려는 스승의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이런 말들은 대개 스승이 제자의 근기를 보아 그럴 만한 때가 이르렀음에도 스스로 관문을 넘지 못하고 넘을라 말라하며 헤매일 때 마치 열을 품던 어미 닭이 병아리 알 껍질을 밖에서 툭 찌어 주어 부화를 돕듯이 특단지는 행위입니다. 공부 가 의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인2)

답2: '판치생모'는 '조사서래의(如何是翻師來意)'를 묻는 제자에게 '판치생모(板蕪生毛)'라고 응답한 고인의 선문답으로 선문의 화두로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판치생모라 하면 흔히 '판대기 이빨에 털이 났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고대 속어를 잘 모르고 그냥 글자를 직역한 잘못된 말입니다. 중국 고대 속어 연구서에 따르면 '판치'란 판대기 이빨이 아니라 '앞 이빨' 특히 어린 아이의 넓적한 앞 이빨을 일컫는 옛날 중국의 속어입니다. 그러므로 '판치생모'의 옳은 해석은 '앞 이빨에 털이 났다'라고 해야 된다면 '판대기 이빨에 털이 났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회두 참구에 더 큰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해 사용해도 무방하다 봅니다. 판치한이라면 아직 유치(것나, 생후 7-8세 까지 사용되다 빠져 버리는 이)를 가진 녀석이라는 뜻입니다. (학인1)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1. 수국과 비슷하며 꽃송이가 큼직한 꽃으로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있음. 부처님 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음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 때의 차례, 방법, 형식, 의미, 내용 따위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일 3.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만든 반찬감 4. 작은 절 5.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6.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과 느낌을 적은 글.

1. 불도의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라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 7. 외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 8. 그릇된 판단 9. 시체를 실어 묘지까지 옮기는, 가마 모양의 도구 10. 경주 토함산에 있는 대표적인 석굴사원 11. 어떤 물체를 통해 반대편을 볼 때 투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임 12. 스스로 포기함 13. 짐에 손가락 14. 축하할 만한 기쁜 일 15. 상징, 훈장 따위를 줌.

세로

정답은 32면에